



평범함이 곧 세상 가장 편안한 호사가 되는 곳

## 왕실 가정의 집, Clarence House

아름다운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가로질러 경찰 몇몇이 지키고 있는, 그다지 웅장하지도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입구를 통과하면 수수하면서도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인다. 바로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그의 동반자 카밀라, 그리고 윌리엄과 해리 왕자들의 공식 자택인 클레런스 하우스다. 평범함 속에 편안한 운치와 품격을 간직한 그곳.

에디터 이승민 글 최명은(런던 통신원) 사진 Christopher Simon Sykes

웬만한 부자의 호화 저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평범한 집. 때문에 근처에 있는 여왕의 버킹엄 궁전을 더욱 빛내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영국 왕실 자택의 특별함이기도 하다. '궁전(Palace)' 이 아니라 '집(House)' 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왕실에 걸맞은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곳.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버킹엄 또는 윈저 궁궐과 비교한다면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단란한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의 흔적이 느껴지는 정말 '집' 같은 곳, 클레런스 하우스다.

이곳의 역사는 1825년 조지 3세의 세 번째 아들 윌리엄 헨리 왕자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클레런스 공작이었던 그는 호화로움을 좋아하던 형들과는 달리 실용적인 성품이면서도 왕실의 품위를 잘 지키는 인물이었다. 지나치게 호화스럽지 않은 이 집은 유명 건축가 존 내시(John Nash)의 설계로 지어졌다. 왕자 직위의 이름을 따서 클레런스 하우스라는 호칭이 붙었고, 인테리어도 자신처럼 수수한 가구와 심플한 데코로 장식했다. 1830년, 형이 죽고 윌리엄 4세로 즉위한 후에도 그는 아름다운 버킹엄 궁전보다 이곳을 더 선





1 Lancaster Room, 2 Morning Room, 3 클래런스 하우스의 외관 모습. All Images Royal Collection © 2008,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호해 마지막 날까지 이 집에서 보냈다고 한다.

윌리엄 4세 이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안 클래런스 하우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빅토리아 여왕의 모친 빅토리아가 살았고, 또 여왕의 아들 앨프레드 왕자가 44년을 살면서 호화스러움에 익숙했던 러시아 차르의 딸인 자신의 부인을 위해 대대적인 내외부 공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3층이었던 당시의 건물은 지금과 같은 4층으로 증축됐고, 현재 규모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1942년부터는 7년간의 전쟁 중 적십자 센터로 사용되어 200여 명의 직원이 바빠 움직이는 현장이기도 했다. 1949년부터 다시 왕실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엘리자베스 여왕(당시 공주)이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여기에서 앤 공주가 태어났으며, 찰스 왕자가 한 살부터 세 살까지 살았던 어린 적 집이기도 하다. 현재의 클래런스 하우스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자리한 방이 있는데, 그곳이 '랭커셔 룸(Lancaster Room)'이다. 당시 엘리자베스 공주 부부가 이사를 올 때는 전쟁 상황이라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했고, 이곳 역시 손볼 곳이 많았다. 이들은 영국 랭커셔 지역 사람들이 결혼 선물로 준 벽난로로 방을 장식했는데, 그고마움으로 방 이름을 '랭커셔 룸'이라 붙였던 것.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이 방은 오늘날까지도 클래런스 하우스의 모든 손님이 처음 안내되어 주인을 기다리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찰스 가족의 자택으로 그와 그의 부인 카밀라가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은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친, 엘리자베스 왕비 '퀸마더'가 1953년부터 200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퀸마더에 관한 이야기다. 실제로 2003년 새로운 입주자를 위해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벽에 걸려 있는 미술 작품들과 가구 배치, 인테리어의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보존됐다고 한다. 미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그녀의 감각

이 돋보이는 클래런스 하우스의 인테리어는 초기 윌리엄 4세가 뜻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품위 있고 클래식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 냄새'가 풍기는 그런 느낌 말이다.

로열 패밀리가 휴가 중인 8월과 9월에만 예약 방식으로 투어가 이루어지는데, 20여 명이 넘지 않는 규모로 가이드가 다이닝 룸을 포함한 5개 방과 복도 등의 공간을 소개해준다. 손님이 기다리는 랭커셔 룸, 퀸마더가 여러 손님들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모닝 룸(Morning Room), 실제로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60주년 결혼 기념 만찬 파티가 있었던 다이닝 룸, 퀸마더가 애지중지했던 말의 테로 장식된 홀스 커리더(Horse Corridor) 등 모든 방과 공간에는 이들의 역사가 깃들여 있다. 일곱 살 난 엘리자베스 여왕의 첫 초상화, 그녀와 마거릿이 배운 피아노, 어엿한 해군 장교복을 입은 윌리엄의 사진, 귀여운 어린 찰스 왕자 사진, 그리고 최근 카밀라와의 결혼 사진까지 진정한 그들의 '일상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돈 내고 박물관에 온 느낌이 아니라 우연히 아는 사람 집에 처음 들른 듯한, 약간은 설레면서도 편안한 기분이 들 것이다. 퀸마더 살아생전 매년 그녀의 생일인 8월 4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왜 찰스가 호화로운 궁전이 아니라 왕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평범한 이 집을 보금자리로 택했는지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되지 않을까.

투어가 끝나고 저택을 나오면 세인트 제임스(St. James) 궁전과 함께 쓰고 있는 정원이 펼쳐진다. 가운데 몇 백 년 된 두 그루의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퀸마더는 이곳을 그녀의 '그린 룸(Green Room)'이라 부르며 자주 차를 마시곤 했다고 한다. 낙엽지는 가을날,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들을 상상하며 클래런스 하우스를 떠난다. ☺

9월 28일까지, 예약 입장만 가능

[www.royalcollection.org.uk](http://www.royalcollection.org.uk) +44-(0)20-7766-7303